

유아의 리더십과 자기조절능력이 또래 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hildren's Leadership and Self-regulation Upon Peer Play Behaviors

가톨릭대학교 아동가족학 전공

박사과정 장 윤 희**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부 교수 문 혁 준***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Doctoral Student : Jang, Yun-Hee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Associate Professor : Moon, Hyuk-J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hildren's socio-demographic variables(i.e. gender, birth order, and the amount of time staying in kindergarten) on, leadership, self-regulation and children's peer play behavior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are 336 children aged between five and seven in four classes in a private kindergarten and eight classes in a private preschool located in the capital reg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girls showed more leadership, self-regulation, and play interaction section than boys: whereas, boys showed higher response in play disruption and the lack of play disconnection. However, birth order,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ub-domain of leadership, self-regulation competence, and peer play behaviors. As for the duration children stay in preschool or in preschool or kindergarten, children who spend half-day showed higher reaction in behavioral self-control and emotional taking abilities than children who stay in the preschool or kindergarten full day. On the other hand, self-esteem of full-time children was higher than half-time children. Children who were emotionally sensitive, knew how to lead their peer group, and those who were sociable and self-regulated presented to be more active in peer-interaction than others. Second, as the result of the correlation analysis reveals, children's leadership, self-regulation competence, peer play behaviors, and play interaction had a meaningful effect on the sub-variations of children's leadership and self-regulation and they showed significant influence upon play disruption and play disconnection. In addition, girls who were not able to manage or to inspect their behavior and had insensitive emotion demonstrated higher tendency to play disconnected.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full-day program with having difficulties in self-regulation or inspecting their behavior properly but had a strong leadership and insensitive showed play disruption highly.

▲주요어(Key Words) : 또래 놀이행동(peer play behaviors), 리더십(leadership), 자기조절능력(self-regulation)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임.

** 주 저 자 : 장윤희 (E-mail : charmrain@naver.com)

*** 교신저자 : 문혁준 (E-mail : mhyukj@unitel.co.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은 성장하면서 자신에게서 자기 주변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데, 특히 유아기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이 속한 맥락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며 관계망을 넓혀가는 시기로(최혜영·신혜영, 2008), 대부분의 취학 전 아동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또래와 상호작용을 하며 교환적인 관계를 가진다.

또래집단 내에서 유아는 가정에서의 생활과는 달리 집단 내에서 거의 같은 지위와 힘을 가지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서로 협력해 가는 방법을 습득한다(Master & Furman, 1981). 유아에게 있어 또래집단은 대표적인 사회집단이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또래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키고 발달해간다는 점에서 또래와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이지희·문혁준, 2008).

또래(peer)란 전형적으로 아동과 연령이나 성숙 정도에서 유사한 타인을 말하며(Santrock, 2003), 발달심리학에서는 또래를 단순히 연령이 같은 유아나 아동이 아니라 행동이 거의 같은 수준에서 상호작용하는 유아들이라 정의한다(김기영, 2006). Piaget(1965)는 '또래'란 '평등'을 의미하고 유아들 사이에 수립된 친구관계에는 나름대로의 평등주의적 경향이 있으며, 상호 합의의 기반 위에서 성립되는 것이라 하였다.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 이후 유아교육에서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들과의 긍정적인 관계와 적절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때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는 사회구조 및 가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국가수준의 지침으로, 현대사회에서 핵가족화, 형제수의 감소, 맞벌이 부부의 증가,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인해 유아가 가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상호작용의 기회는 감소되고 있으나, 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과거보다 일찍부터 또래집단에 참여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기관에서 보내는 유아들이 증가함에 따라 또래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Shaffer(2000)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모델링 효과는 긍정적인 행동을 촉진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감소시키는 등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으며, Gottman 등(1975)는 또래집단 내에서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경험한 유아는 그렇지 못한 유아에 비해 친구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유능함을 더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즉 유아는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적인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되지만(송명자, 1995), 또래 상호작용을 적절히 경험하지 못한 유아는 자신과 사회에 대해 부정적인 개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실행할 기회를 잃어버림으로써, 또래집단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성 발달을 지연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수 있다(Kupersmidt & Coie, 1990; Parker & Asher, 1987).

이와 같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관계형성은 그 자체로서 발달과제를 완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타인에게 적응시키고 다수의 아동들과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며 사회적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이경미, 1992)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유아기의 사회적 상호교류, 즉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유아가 또래와 놀이를 하는 장면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Vygotsky(1976)는 또래 간의 놀이를 사회적 지식을 습득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또래집단 간 놀이상호작용은 유아의 사회화에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해 준다고 하였다(이순복, 2009 재인용). 또래와의 놀이는 유아에게 있어 생활자체일 뿐만 아니라 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변화하고 발달하며, 유아의 사회화 과정과 사고의 발달을 반영하고 증진시킨다.

Putallaz와 Wasserman(1990)는 아동이 또래와 잘 지내기 위해서는 놀이 집단에 가입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고 하였다. 유아는 놀이를 하는 가운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시도하고 자신의 의도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며, 나아가 또래의 행동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행동전략과 기술을 습득한다(배지희, 1995; Berger & Thompson, 1996; Oliver & Klugman, 2003). 즉 놀이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을 반영해주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한 형태로서 중요한 매개체이기 때문에(Rubin & Krasnor, 1980), 놀이를 통해 유아는 효과적인 또래관계를 발달시키는 사회적 맥락을 형성하므로 유아기 또래놀이는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아동의 성, 출생순위, 부모-아동의 상호작용의 질, 부모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모 취업여부와 같은 가정배경이 아동의 또래관계 또는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동, 사회적 능력, 사회·정서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학자들(Buhrmester, 1992; East & Rook, 1992; Felner et al., 1995; Goldsall et al., 2004; Perry & Bussy, 1984)이 보고하고 있다.

이 중 유아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아는 남아보다 친사회적 행동의 빈도가 더 높은 데 비해 남아는 공격적인 행동이나 또래 갈등의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박주희, 2000; 위영희, 2004; 임형희, 2008; 김윤희, 2010), 일반아동과 영재아동의 또래관계를 비교한 연구(박승철, 2005)에서도 남아보다 여아의 또래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 남아에 비해 정서지능이 높은 경향을 지니는데, 이러한 정서지능의 차이가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유능성에 차이를 가져다준

다고 보고된 바 있다(이지영 등, 2009). 반면, 남아가 여아보다 사회지식과 유능성 부분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박남자 등, 2008)도 있어, 선행연구 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에 있어서 남아와 여아의 차이를 밝히는 것은 의미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출생순위는 아동이 형제관계에서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이 또래와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과 유사하다(정유진, 2005; 최용주, 1992; Buhmester, 1992; East & Rook, 1992)는 사실에 근거 할 때, 형제와의 상호작용 경험이 많은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 상황에서도 유능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또래 놀이 상호작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아니지만 출생순위에 따른 발달적 차이에 대해 김재우·손경환(2009)은 출생순위가 상위일수록 부모의 양육경험과 높은 기대수준이 아동의 발달에 직, 간접적 영향을 미쳐 높은 성취를 이루게 하는 요인이라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유아의 출생순위가 또래 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최근 사회적 변화는 유아의 사회화 경험 시기를 앞당길 뿐만 아니라 유아가 장시간 기관에 머물기를 요구한다(장영숙·황윤세, 2009). 실제로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져 저출산이나 국가경쟁력 저하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Harman(1982)과 Stewart(1995)는 종일제 프로그램의 유아가 좀 더 사교적이며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이라고 보고한 반면, 국내연구에서는 반일제 유아들보다 종일제 유아들이 사회적 문제 상황에서 수동적인 대처를 많이 하며 낮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인다(김희형, 2002; 안지영 등, 2007)고 보고되는 등 국내·외 연구 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종일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서 종일제 운영에 대한 국가적 지침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할 때, 선행연구에서 비교적 덜 다루어져 왔던 종일제 프로그램이나 반일제 프로그램 등 기관이용시간에 따른 유아의 또래 놀이 행동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인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또래 놀이행동은 유아의 개인 및 가족 관련 변인과 또래관계 내에서 사회적 지위 외에 사회성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유아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행동양식 및 정서적 특성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또래 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도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현대사회의 전 분야에 대한 미래 예측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진정한 리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리더십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물론 유아 리더십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유아기는 또래와의 친사회적 행동을 통해 자아개념의 발달과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유아에게 있어 인성의 기초가 되는 리더십 발달은 중요한 발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유아기 리더십에 관해 연구한 Mitchell(1997)은 리더십이 유아기에 뿌리를 둔 정서적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일차적으로 독특한 개인적 관계와 실제 상황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발달한다고 하였다. 즉 유아는 놀이 상황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리더십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원만한 대인관계 능력을 길러 사회적 관계를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과 리더십의 관계를 살펴보면, Trawick-Smith(1988)는 인기가가 종종 놀이 활동을 안내하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놀이를 안내하는 또래관계에서의 이러한 자발성이 아동을 매력적인 놀이 상대가 되도록 만든다고 하였다. 국내연구에서 김수영(2000)은 놀이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유아는 사회적 기술이 높다고 하였으며, 김경숙(2001)의 연구에서는 또래와의 놀이 활동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유아는 유아 교육기관에의 적응력이 높다고 하였다. 김기영(2006)과 문혁준(2010)은 긍정적인 상호작용 행동이 많은 유아에게는 친사회적 리더십이 높게 나타나나, 부정적인 상호작용 행동이 많은 유아에게는 사회적 지배행동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서기남(2009)의 연구에서 또래 상호작용과 유아 리더십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은 유아 리더십과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은 유아 리더십과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이를 하는 동안 또래 관계에서 나타나는 리더십이나 지배행동에 대한 발달연구는 부족하며, 놀이 상황 속에서 개인, 가족, 또래그룹의 특성에 대해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국내연구에서 유아 리더십은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또래 놀이행동과 리더십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아의 성별과 관련하여 김복희(2006)는 남아가 여아보다 공동체 리더십 점수가 높다고 보고하였으나, 문혁준(2010)과 서기남(2009)은 여아가 남아보다 리더십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해 서기남(2009)은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녀 유아들에게 각기 다른 방식의 표현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출생순위와 관련하여 첫째나 외동보다 둘째이상의 유아가 리더십이 높다는 보고가 있었으며(김성민, 2001; 우정순, 2010), 반일제 유아의 리더십 평균이 종일제 유아의 리더십 평균보다 높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장영숙·황윤세, 2009)도 보고된 바 있다.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변인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자기조절능력이다. 자기조절능력은 타인 조절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외적 조절자가 없어도 유아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능력이며(이임순, 2008), Block과 Block(1980)에 의하면 자기조절은 외부의 감시가 없이도 사회적

규칙을 지키려는 것, 상황에 따라 행동과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 요구나 명령에 순응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유아기부터 발달하는 집중력과 행동에 대한 통제력은 아동의 사회적인 자신감과 더불어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Barton & Robins, 2000). Kopp(1982)는 3~5세의 유아들은 행동을 위한 내적 기준에 따라서 스스로의 행동을 감독하기 시작하며 표상적인 사고의 상위인지능력이 성장하면서 외부의 감독 없이도 적절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기에 자기조절이 극적으로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과 자기조절능력의 관계를 살펴보면, 또래로부터 지속적으로 거부당하는 아동들은 이후 아동기와 청소년기 행동상의 어려움이나 사회적 부적응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종단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으며(Parker & Asher, 1987), Bagwell 등(1998)은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경우 대처능력이나 자기조절능력이 높고, 또래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를 많이 받은 아동일수록 외현적 또는 정서적 문제행동을 적게 나타내어 학령기 이후에도 사회생활에 적응을 잘한다고 보고하였다. Fantuzzo와 Mendez(1998)은 상호작용적 또래 놀이행동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유아들은 자아통제감이 낮았고, 평소 놀이 활동에의 참여가 적격적이지 않음을 보고하였으며, 자기조절력이 높은 유아는 자신의 감정상태를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사고, 감정, 의도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연구(Honing & Wittmer, 1994; Parker & Asher, 1987; Patterson et al., 1990)도 다수이다.

또한, 유아에게 있어 또래 놀이의 성공 여부는 유아 개인의 사회성에 달려 있으며, 유아의 사회성은 부적절한 충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과 적절한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것에 관심 갖기와 같은 정서적인 동기를 포함한다(노재은, 1999). 이러한 관점에서 예측해 본다면 리더십과 더불어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은 자기조절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성별과 관련하여 강기숙(2001)과 김민정(2008)은 남아보다 여아의 자기통제력과 자기조절능력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Dodge(1983)의 연구에서는 또래로부터 거부된 남아들이 공격적 성향을 자주 보인다고 하였다. 유아의 출생순위와 관련하여 Kagan(1989)은 맏이보다는 둘째 이하의 아동들에게서 행동억제 점수가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고, Snow 등(1981)은 실증연구를 통하여 억제된 행동은 첫째보다 둘째 이하가 더 많이 보였다고 보고하였으나, 국내연구(이미정, 1999)에서 출생순위에 따른 행동억제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 리더십과 자기조절능력 변인 간의 관계는 또래와의 협동놀이를 통해 유추해 볼 수는 있다. 김남순과 허영숙(2008)의 연구에서 또래 간 협동적인 게임활동은 모둠

끼리 함께 응원하기 위해 유아 스스로 모둠을 구성하고 게임방법과 규칙을 정하는 과정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높인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수기(2005)는 협동적인 미술활동을 진행해 가면서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고 타인의 욕구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욕구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된다고 하였다. 이는 비록 리더십과 자기조절능력 간 직접적인 관계를 보고한 연구결과라고 할 수는 없으나, 유아 리더십이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되고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은진, 2005)이며, 자기조절능력이 유아가 사회적 규칙을 지키려는 것, 상황에 따라 행동과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Block & Block, 1980)임을 볼 때, 리더십과 자기조절능력 간에는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유아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므로 유아가 자신과 주변을 이끌어가는 리더십과 환경을 통제하고 상황에 대해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은 또래 놀이행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더불어 리더십과 자기조절능력을 유아기 이후의 사회, 정서적 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인간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Bronson, 2000)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놀이 시 나타나는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 각 하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 필요성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유아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성별, 출생순위, 기관이용시간)에 따른 리더십, 자기 조절능력, 또래 놀이행동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유아의 리더십, 자기조절능력, 또래 놀이 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유아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성별, 출생순위, 기관이용시간), 리더십, 자기조절능력이 또래 놀이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사립 유치원 만5세반 8개 학급과 민간 어린이집 4개 학급에 다니는 유아 33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검사에 앞서 1주 간 검사문항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위해 현장에서 답임을 맡고 있는 유치원 교사 3명을 대상으로 하여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도구는 연구자가 직접 해당 유치원을 방문하여 유아교육기관의 동의를 얻고,

면담을 통해 연구목적 및 연구의 의도와 검사도구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한 뒤,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담임교사는 실내 및 실외의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또래와의 상호작용 및 놀이 시 나타나는 유아의 행동을 약 2주간 면밀히 관찰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였으며, 기관운영방식의 차이에 따라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은 연구자와의 전화통화 또는 메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였다. 한 달 후, 연구자가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모든 검사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검사도구는 2009년 10월 2주에 배부하여 2009년 11월 1주에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1>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전체 336명의 유아 중 남아는 185명(55.1%), 여아는 151명(44.9%)이었으며, 형제 수는 2명이 236명(70.2%)으로 가장 많았고 1명이 58명(17.3%), 3명이 42명(12.5%)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는 첫째 또는 외동아가 199명(59.2%)로 가장 많았고 둘째가 115명(34.2%), 셋째 이상이 22명(6.6%)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연령은 아버지의 경우, 30대가 229명(68.2%), 40대가 104명(31.0%), 50대가 3명(9%)이었고, 어머니의 경우, 20대가 10명(30%), 30대가 285명(84.8%), 40대가 41명(12.2%)이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를 살펴보면 취업모 중 전일제가 152명(45.2%), 시간제가 26명(7.7%)이었고 비취업모는 157명(46.7%)이었으며, 유아의 기관이용시간에 따라 반일제와종일제로 구분되었는데, 반일제는 248명(73.8%), 종일제는 88명(26.2%)이었다.

2. 측정도구

1) 리더십

유아의 리더십을 검사하기 위해 이채호·최인수(2008)가 개발한 교사용 유아 리더십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주도성, 사교성, 민감성으로 구성되며,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리더십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 는 주도성 .85, 사교성 .86, 민감성 .85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80으로 나타났다.

2) 자기조절능력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검사하기 위한 도구로는 이정란·양옥승(2003)의 부모용 유아기 자기조절 검사도구를 이학선(2007)이 교사용 평정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한 평가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점검의 하위요인인 자기평가와 자기결정, 자기통제의 하위요인인 행동억제와 정서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정서성은 역산처리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 는 자기평가 .94, 자기결정 .85, 행동억제 .94, 정서성 .89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95로 나타났다.

3) 또래 놀이행동 측정도구

본 연구의 검사도구로는 Fantuzzo와 동료들(1998)이 수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336)

	구 분	빈도	%
성 별	남	185	55.1
	여	151	44.9
형제 수	1명	58	17.3
	2명	236	70.2
	3명	42	12.5
출생순위	첫째 또는 외동	199	59.2
	둘째	115	34.2
	셋째 이상	22	6.6
아버지 연령	30대	229	68.2
	40대	104	31.0
	50대	3	.9
어머니 연령	20대	10	3.0
	30대	285	84.8
	40대	41	12.2
어머니 취업여부	취업		
	전일제	152	45.2
	시간제	26	7.7
	비취업		
	전업주부	158	46.7
기관이용시간	반일제	248	73.8
	종일제	88	26.2

정·보완한 PIPPS(Penn Interactive Peer Play)를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최혜영·신혜영(2008)의 교사용 또래 놀이행동 척도(PIPP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놀이단절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 는 놀이상호작용 .79, 놀이단절 .88, 놀이방해 .94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는 .80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WIN 17.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유아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성별, 출생순위, 기관이용시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유아 리더십과 자기조절능력, 또래놀이행동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또래놀이행동의 각 하위변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유아의 성별, 출생순위, 기관이용시간에 따른 자기조절능력, 리더십, 또래 놀이행동의 차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리더십, 자기조절능력, 또래 놀이행동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리더십에서 남아의 주도성($M=3.18, SD=.80$), 사교성($M=3.41, SD=.87$), 민감성($M=3.61, SD=.86$)보다 여아의 주도성($M=3.42, SD=.76$), 사교성($M=3.66, SD=.73$), 민감성($M=3.91, SD=.72$)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자기조절능력에서도 남아의 자기평가($M=3.54, SD=1.05$), 자기결정($M=3.43, SD=1.09$), 행동억제($M=3.14, SD=.95$), 정서성($M=3.29, SD=.96$)보다 여아의 자기평가($M=4.04, SD=.92$), 자기결정($M=3.86, SD=.77$), 행동억제($M=3.77, SD=.80$), 정서성($M=3.84, SD=.77$)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한편, 또래 놀이행동에서 놀이상호작용은 남아($M=2.92, SD=.65$)가 여아($M=3.20, SD=.67$)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놀이단절에서 남아($M=1.90, SD=.63$)가 여아($M=1.49, SD=.50$)보다 높게 나타났고 놀이방해에서도 남아($M=2.07, SD=.71$)가 여아($M=1.70, SD=.58$)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유아의 리더십, 자기조절능력, 또래 놀이행동은 남아와 여아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여아는 리더십의 주도성, 사교성, 민감성과 자기조절능력, 자기결정, 행동억제, 정서성 그리고 또래 놀이행동의 놀이상호작용이 남아보다 높고, 남아는 여아보다 또래 놀이행동의 놀이단절과 놀이방해가 더 높게 나타났다.

유아의 출생순위에 따라 리더십, 자기조절능력, 또래 놀이행동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유아 리더십의 주도성, 사교성과 자기조절능력의 자기결정, 행동억제, 정서성, 또래 놀이행동의 놀이상호작용에서는 첫째 또는 외동인 유아가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 리더십의 민감성과 자기조절능력의 자기평가, 또래

<표 2> 유아의 성별에 따른 리더십, 자기조절능력, 또래 놀이행동의 차이

(N=336)

		남 자 (n=185)	여 자 (n=151)	
		M(SD)	M(SD)	
리더십	주도성	3.18(.80)	3.42(.76)	-2.77**
	사교성	3.41(.87)	3.66(.73)	-2.84**
	민감성	3.61(.86)	3.91(.72)	-3.42***
자기조절능력	자기평가	3.54(1.05)	4.04(.92)	-4.64***
	자기결정	3.43(1.09)	3.86(.77)	-4.23***
	행동억제	3.14(.95)	3.77(.80)	-6.58***
	정서성	3.29(.96)	3.84(.77)	-5.76***
또래 놀이행동	놀이상호작용	2.92(.65)	3.20(.67)	-3.95***
	놀이단절	1.90(.63)	1.49(.50)	6.66***
	놀이방해	2.07(.71)	1.70(.58)	5.18***

p<.01, *p<.001

<표 3> 유아의 출생순위에 따른 리더십, 자기조절능력, 또래 놀이행동의 차이 (N=336)

		첫째 또는 외동 (n=199)	둘째 이상 (n=137)	t
		M(SD)	M(SD)	
리더십	주도성	3.30(.82)	3.27(.74)	.34
	사교성	3.53(.83)	3.51(.81)	.11
	민감성	3.73(.80)	3.76(.84)	-.40
자기조절능력	자기평가	3.76(1.05)	3.78(.99)	-.18
	자기결정	3.63(.92)	3.62(1.08)	.12
	행동억제	3.45(.96)	3.38(.92)	.65
	정서성	3.56(.88)	3.51(.98)	.50
또래 놀이행동	놀이상호작용	3.05(.70)	3.04(.64)	.05
	놀이단절	1.70(.58)	1.73(.66)	-.52
	놀이방해	1.89(.69)	1.92(.66)	-.35

<표 4> 유아의 기관이용시간에 따른 리더십, 자기조절능력, 또래 놀이행동의 차이 (N=336)

		반일제 (n=248)	종일제 (n=88)	t
		M(SD)	M(SD)	
리더십	주도성	3.23(.75)	3.42(.87)	-1.81
	사교성	3.54(.77)	3.48(.95)	.51
	민감성	3.77(.77)	3.66(.95)	1.06
자기조절능력	자기평가	3.69(1.00)	3.99(1.05)	-2.35*
	자기결정	3.59(.96)	3.73(1.05)	-1.09
	행동억제	3.52(.86)	3.14(1.10)	2.94**
	정서성	3.65(.84)	3.25(1.06)	3.51**
또래 놀이행동	놀이상호작용	3.06(.66)	2.99(.72)	.88
	놀이단절	1.71(.57)	1.73(.73)	-.15
	놀이방해	1.87(.65)	2.00(.73)	-1.60

*p<.05, **p<.01

놀이행동의 놀이단절과 놀이방해에서는 둘째 이상인 유아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유아의 출생순위에 따른 리더십, 자기조절, 또래 놀이행동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기관이용시간에 따라 리더십, 자기조절능력, 또래 놀이행동의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리더십의 주도성은 반일제 유아보다 종일제 유아가 더 높게 나타났고, 사교성과 민감성은 반일제 유아가 종일제 유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자기조절능력의 자기평가는 반일제 유아(M=3.69, SD=1.00)보다 종일제 유아(M=3.99, SD=1.05)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자기결정에서도 반일제 유아(M=3.59, SD=.96)보다 종일제 유아(M=3.73, SD=1.05)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반면, 행동억제는 반일제 유아(M=3.52,

SD=.86)가 종일제 유아(M=3.14, SD=1.10)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정서성도 반일제 유아(M=3.65, SD=.84)가 종일제 유아(M=3.25, SD=1.06)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래 놀이행동에서 놀이상호작용은 반일제 유아보다 종일제 유아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놀이단절과 놀이방해에서는 반일제 유아보다 종일제 유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유아의 기관이용시간에 따라 자기조절능력의 자기평가, 행동억제, 정서성에서 반일제 유아와 종일제 유아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2. 유아의 리더십, 자기조절능력, 또래놀이행동 간의 관계

유아의 리더십, 자기조절능력, 또래놀이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리더십, 자기조절능력, 또래놀이행동의 하위변인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표 5> 유아의 리더십, 자기조절능력, 또래놀이행동 간의 관계

(N=336)

		1	2	3	4	5	6	7	8	9	10
리더십	1 주도성	1									
	2 사교성	.81***	1								
	3 민감성	.76***	.79***	1							
자기조절 능력	4 자기평가	.75***	.72***	.60***	1						
	5 자기결정	.70***	.67***	.68***	.74***	1					
	6 행동억제	.35***	.38***	.66***	.31***	.57***	1				
	7 정서성	.33***	.38***	.59***	.35***	.57***	.80***	1			
또래 놀이행동	8 놀이상호작용	.72***	.74***	.76***	.57***	.61***	.55***	.49***	1		
	9 놀이단절	-.57***	-.60***	-.67***	-.62***	-.64***	-.55***	-.64***	-.58***	1	
	10 놀이방해	-.20***	-.25***	-.57***	-.27***	-.46***	-.79***	-.78***	-.41***	.64***	1

***p<.001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주도성과 사교성은 .91, 주도성과 민감성은 .76, 주도성과 자기평가는 .75, 주도성과 자기결정은 .70, 주도성과 행동억제는 .35, 주도성과 정서성은 .33, 주도성과 놀이상호작용은 .72, 주도성과 놀이단절은 -.57, 주도성과 놀이방해는 -.20으로 나타났다. 사교성과 민감성은 .79, 사교성과 자기평가는 .72, 사교성과 자기결정은 .67, 사교성과 행동억제는 .38, 사교성과 정서성은 .38, 사교성과 놀이상호작용은 .74, 사교성과 놀이단절은 -.60, 사교성과 놀이방해는 -.25로 나타났다. 민감성과 자기평가는 .60, 민감성과 자기결정은 .68, 민감성과 행동억제는 .66, 민감성과 정서성은 .59, 민감성과 놀이상호작용은 .76, 민감성과 놀이단절은 -.67, 민감성과 놀이방해는 -.57로 나타났다. 자기평가와 자기결정은 .74, 자기평가와 행동억제는 .31, 자기평가와 정서성은 .35, 자기평가와 놀이상호작용은 .57, 자기평가와 놀이단절은 -.62, 자기평가와 놀이방해는 -.27로 나타났다. 자기결정과 행동억제는 .57, 자기결정과 정서성은 .57, 자기결정과 놀이상호작용은 .61, 자기결정과 놀이단절은 -.64, 자기평가와 놀이방해는 -.46으로 나타났다. 행동억제와 정서성은 .60, 행동억제와 놀이상호작용은 .55, 행동억제와 놀이단절은 -.55, 행동억제와 놀이방해는 -.79로 나타났다. 정서성과 놀이상호작용은 .49, 행동억제와 놀이단절은 -.64, 행동억제와 놀이방해는 -.78로 나타났다. 놀이상호작용과 놀이단절은 -.58, 놀이상호작용과 놀이방해는 -.41, 놀이단절과 놀이방해는 .64로 나타났다.

즉 리더십, 자기조절능력, 또래놀이행동의 하위변인 간에는 정적 또는 부적 상관이 나타남으로써 이들 변인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유아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 리더십, 자기조절능력이 또래 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

유아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성별, 출생순위, 기관이용시간), 리더십, 자기조절능력이 또래 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가중성을 파악하기 위해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VIF는 10이하(1.02~7.21), TOL는 0.1 이상(.14~.99)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 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회 인구학적 변인, 리더십, 자기조절능력이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에 미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 <표 7>, <표 8>과 같다. 1단계에서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성별, 출생순위, 기관이용시간)을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리더십, 3단계에서는 자기조절능력 변인을 투입하였다.

먼저, <표 6>을 살펴보면, 놀이상호작용의 1단계에서 사회 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성별($\beta=.21, p<.0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2%였다. 2단계에서 리더십 투입에 의한 설명력의 증가는 59%로 나타나,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리더십 관계의 설명력은 47%로 나타났다. 이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성별($\beta=.07, p<.05$), 주도성($\beta=.19, p<.05$), 사교성($\beta=.20, p<.05$), 민감성($\beta=.45, p<.001$)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자기조절능력 투입에 의한 설명력의 증가는 2%로 나타났으며 사회 인구학적 변인, 리더십, 자기조절능력 관계의 설명력은 53%로 나타났다. 이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주도성($\beta=.21, p<.05$), 사교성($\beta=.25, p<.05$), 민감성($\beta=.28, p<.001$), 행동억제($\beta=.18, p<.01$)로 나타났고, 유아의 성별이 미치는 영향력은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리더십의 주도성, 사교성, 민감성이 높고 자기조절능력 중 행동억제능력이 높을수록 유아 간 또래 놀이

<표 6> 유아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 리더십, 자기조절능력이 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 (N=336)

독립변인	놀이상호작용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사회 인구학적 변인	성별 ^a	.29	.21***	.09	.07*	.04	.03
	출생순위 ^b	.03	.02	.02	.01	.00	.00
	기관이용시간 ^c	-.05	-.03	-.05	-.05	-.02	-.01
리더십	주도성			.17	.19*	.18	.21*
	사교성			.16	.20*	.20	.25**
	민감성			.37	.45***	.23	.28***
자기조절능력	자기평가					.00	.01
	자기결정					-.00	-.01
	행동억제					.13	.18**
	정서성					.01	.01
F값		5.37**		97.56***		61.82***	
R ²		.05		.64		.66	
adj. R ²		.02		.47		.53	
R ² 변화량				.59		.02	

*p<.05, **p<.01, ***p<.001

a: 가변수(남아=0, 여아=1), b: 가변수(외동 또는 첫째=0, 둘째 이상=1), c: 가변수(반일제=0, 종일제=1)

<표 7> 유아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 리더십, 자기조절능력이 놀이단절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 (N=336)

독립변인	놀이단절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사회 인구학적 변인	성별 ^a	-.42	-.34***	-.27	-.22***	-.15	-.12**
	출생순위 ^b	-.01	-.01	.02	.02	.02	.02
	기관이용시간 ^c	-.02	-.02	-.06	-.05	-.08	-.06
리더십	주도성			.02	.03	.10	.13
	사교성			-.16	-.21*	-.12	-.17*
	민감성			-.37	-.49***	-.19	-.25**
자기조절능력	자기평가					-.16	-.27***
	자기결정					-.03	-.05
	행동억제					.05	.08
	정서성					-.25	-.38***
F값		14.05***		57.65***		56.59***	
R ²		.11		.51		.64	
adj. R ²		.09		.48		.50	
R ² 변화량				.40		.13	

*p<.05, **p<.01, ***p<.001

a: 가변수(남아=0, 여아=1), b: 가변수(외동 또는 첫째=0, 둘째 이상=1), c: 가변수(반일제=0, 종일제=1)

상호작용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표 7>을 살펴보면, 놀이단절의 1단계에서 사회 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성별($\beta=-.34, p<.0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9%였다. 2단계에서 리더십 투입에 의한 설명력의 증가는 40%로

나타나,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리더십 관계의 설명력은 48%로 나타났다. 이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성별($\beta=-.22, p<.001$), 사교성($\beta=-.21, p<.05$), 민감성($\beta=-.49, p<.001$)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자기조절능력 투입에 의한 설명력의 증가는 13%로 나타났으며 사회 인구학적 변인, 리더십, 자기조절

<표 8> 유아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 리더십, 자기조절능력이 놀이방해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 (N=336)

독립변인		놀이방해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사회 인구학적 변인	성별 ^a	-.36	-.26***	-.24	-.17***	-.01	-.01
	출생순위 ^b	-.02	-.02	.04	.03	.02	.02
	기관이용시간 ^c	.10	.07	-.03	-.02	-.15	-.10*
리더십	주도성			.34	.39***	.31	.36***
	사교성			.18	.22	.07	.08
	민감성			-.83	-1.00***	-.31	-.37***
자기조절능력	자기평가					-.09	-.13*
	자기결정					.01	.02
	행동억제					-.29	-.40***
	정서성					-.26	-.36***
	F값	9.14**		50.75***		84.47***	
	R ²	.08		.48		.72	
	adj. R ²	.07		.47		.65	
	R ² 변화량			.40		.32	

*p<.05, **p<.01, ***p<.001

a: 가변수(남아=0, 여아=1), b: 가변수(외동 또는 첫째=0, 둘째 이상=1), c: 가변수(반일제=0, 종일제=1)

능력 관계의 설명력은 50%로 나타났다. 이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성별($\beta=-.12, p<.01$), 사교성($\beta=-.17, p<.05$), 민감성($\beta=-.25, p<.01$), 자기평가($\beta=-.27, p<.001$), 정서성($\beta=-.38, p<.001$)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이면서 사교성과 민감성이 부족하고 자기평가와 정서성이 낮은 유아의 놀이단절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8>을 살펴보면, 놀이방해의 1단계에서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성별($\beta=-.26, p<.0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8%였다. 2단계에서 리더십 투입에 의한 설명력의 증가는 40%였으며, 사회 인구학적 변인과 리더십 관계의 설명력은 47%로 나타났다. 이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성별($\beta=-.17, p<.001$), 주도성($\beta=-.39, p<.001$), 사교성($\beta=-.22, p<.05$), 민감성($\beta=-1.00, p<.001$)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자기조절능력 투입에 의한 설명력의 증가는 32%로 나타났으며 사회 인구학적 변인, 리더십, 자기조절능력 관계의 설명력은 65%로 나타났다. 이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기관이용시간($\beta=-.10, p<.05$), 주도성($\beta=.36, p<.001$), 민감성($\beta=-.37, p<.001$), 자기평가($\beta=-.13, p<.05$), 행동억제($\beta=-.40, p<.001$) 정서성($\beta=-.36, p<.001$)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성별이 미치는 영향력은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일반 유아이면서 주도성이 높으나 민감하지 않으며, 자기평가와 행동억제 능력이 부족하고, 정서성이 낮은 유아의 놀이방해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유아가 가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상호작용의 기회가 감소되고, 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기관에서 보내는 유아들이 증가함에 따라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또래 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며 몇 가지 논의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유아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또래 놀이행동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다. 성별에 따라 리더십, 자기조절능력, 또래 놀이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리더십의 하위변인인 주도성, 사교성, 민감성과 자기조절능력의 하위변인인 자기평가, 자기결정, 행동억제, 정서성 그리고 또래 놀이행동의 놀이상호작용에서 남아보다 여아가 높게 나타났으며, 또래 놀이행동의 놀이단절과 놀이방해는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또래 놀이상호작용에 있어 여아가 남아보다 긍정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반면, 남자는 여아보다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원명선, 2006; 정선교, 2006)와 일치하나, 여아보다 남아의 놀이단절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놀이단절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김윤희(2010)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리더십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문혁준(2010)과 서기남(200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또래와 상호작용 빈도가

높으며 보다 주도적으로 또래관계를 이끌어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기조절능력에서도 남아보다 여아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여아가 남아보다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에서 참울성이 보이며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이 높다고 보고한 이경님(2001)의 연구결과와 자기통제나 충동성 감소에 있어서 남아보다 여아가 높은 조절능력을 보였다는 홍지영(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의 친사회성이 남아보다 높고 긍정적인 상호작용 행동이 많은 유아가 친사회적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김기영, 2006; 박주희, 2000; 위영희, 2004)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언어발달 및 심리적 성숙이 빠르며,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의 기분 및 상황을 잘 이해하여 효과적인 또래관계로 이어가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생순위에 따른 리더십, 자기조절능력, 또래 놀이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출생순위는 리더십, 자기조절능력, 또래 놀이행동의 각 하위영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출생순위가 우위일수록 부모의 양육 경험과 높은 기대수준이 아동의 발달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김재우·손경환(2009)의 연구, 리더십과 관련하여 출생순위의 차이를 보고한 김성민(2001), 우정순(2010)의 연구, 만이와 둘째 이하의 아동들 간 행동억제 점수에 차이가 있었다는 Kangan(1989)의 연구나 Snow 등(1981)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미정(1999)의 연구에서는 출생순위에 따라 행동억제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여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출생순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원인은 최근 하나 또는 두 자녀만을 둔 가정이 증가하면서 부모들이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평등한 양육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일찍부터 기관생활에 적응하여야 하는 유아가 부모나 형제로부터 기대되는 역할행동을 부여받기보다는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성향을 학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관이용시간과 관련하여 반일제를 이용하는 유아와 종일제를 이용하는 유아 간 리더십, 자기조절능력, 또래 놀이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기조절능력에서 반일제 유아가 종일제 유아보다 행동억제와 정서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선희(2005)가 반일제 유아보다 종일제 유아가 불안, 위축, 공격, 미성숙 행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 반일제 유아가 양육자와 분리불안을 겪지 않고, 가정에서 오후 시간을 편안하고 일관된 양육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발달하고 정서적 안정을 얻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반일제 유아보다 종일제 유아의 자기평가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것은 종일제 프로그램의 유아가 좀 더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Harman,

1982; Stewart, 1995)와 반일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보다 종일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이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한 연구결과(Ericker & Mathur, 1997)에 근거할 때, 종일제 유아가 사회적이고 다양한 환경을 경험할 기회가 많아, 반일제 유아보다 인지적으로 더 발달하여 스스로를 평가하는 능력이 더 발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유아의 기관이용시간과 관련하여 자기조절능력의 하위영역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취업모 또는 비취업모가 유아에게 주는 심리적·상호작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단, 이러한 결과가 기관에 머문 시간과 관련하여 반드시 모든 변인에서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또래 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 차이는 기관에 머문 시간의 길이보다 프로그램의 질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의 반일제 유아가 종일제 유아보다 많은 비율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나, 취업모가 급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종일제 운영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확장된 모집단을 연구하여 기관이용시간과 관련된 변인을 밝힐 필요가 있겠다.

둘째, 유아의 리더십, 자기조절능력, 또래놀이행동의 하위 변인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리더십, 자기조절능력, 또래놀이행동의 하위변인 강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놀이상호작용은 리더십과 자기조절능력의 하위변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으며, 놀이단절과 놀이방해는 리더십과 자기조절능력의 하위변인과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유아의 리더십과 자기조절능력은 또래놀이 행동에서 나타나는 또래 간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황윤세(2007)가 보고한 자기조절능력이 또래 상호작용과 관련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놀이상호작용이 리더십의 하위변인과 높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 리더십의 하위영역인 주도성과 사교성 간의 관계가 지나치게 높은 상관을 보임으로써 추후 연구를 통해 리더십의 하위영역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상대적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놀이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도성, 사교성, 민감성, 행동억제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도적이고 사교성 있으며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를 잘하는 유아일수록 또래 상호작용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Mitchell(1997)이 언급한 리더십이 유아기에 뿌리를 둔 정서적 특성과 관련 있다는 사실과 황윤세(2007)의 연구에서 유아의

놀이상호작용에 대해 자기조절력의 정서인식, 점검 및 평가하기, 계획하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지영 등(2009)의 연구에서 정서지능의 차이가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유능성에 차이를 가져다준다고 보고한 결과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또래 상호작용은 리더십 및 자기조절능력의 하위 영역과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과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놀이단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사교성, 민감성, 자기평가, 정서성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이면서 사교적이지 못하고 환경에 덜 민감하며 정서성이 낮고 자기를 평가하지 못할수록 놀이단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단절은 배회, 놀이거절, 무시 등 위축적인 행동과 관련된 부정적인 차원의 행동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황운세, 2007), 자유놀이시간에 배회하거나 유아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행동이 그 원인이며 유아의 또래수용도와 관련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엄정애(2004)의 연구에서는 혼자놀이가 참여도와 자기규제 간에 부적상관을 보고하였는데, 혼자놀이가 일어나는 맥락을 고려하여,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맥락임에도 불구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거부한 채 혼자놀이를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Rubin & Coplan, 1998)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는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거나 또래와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유아를 파악하고 또래와의 놀이에서 긍정적인 행동의 모델링을 제시하고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기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려는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놀이방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기관이용시간, 주도성, 민감성, 자기평가, 행동억제, 정서성으로 나타났다. 즉 종일제 프로그램의 유아이면서 주도적이고 정서적으로 덜 민감하며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유아일수록 놀이방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ottman 등(1975)과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유아는 유능한 유아에 비해 또래관계를 맺고 유지하거나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나 이진화(2009)가 어머니의 놀이지지가 적을수록 놀이방해 행동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주도성이 높을수록 놀이방해가 높게 나타난 것은 놀이방해가 유아의 놀이 상황에서 놀이감, 놀이영역, 놀이역할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 또는 놀이방해, 신체적 공격을 이용해 또래집단 내에서 사회적 힘을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김진영(1997)의 연구결과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즉 종일제 프로그램의 유아가 기관에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가족과의 상호작용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양육자로부터 또래놀이에 대한 지지를 받을 기회가 적기 때문에 또래에게

인정받기 위해 욕구를 지연시키기보다는 감정에 의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서 방해하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오늘날 종일제 프로그램 운영이 일반화되고 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교육기관에서 또래와의 놀이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며, 가족 간 질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또래 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였지만, 변인들 간의 관계를 횡단적인 연구방법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하는 변인은 종단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횡단적인 연구에서 주는 한계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 환경, 연령에 대한 한계가 있으며 이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환경과 연령을 동시에 고려한 대상선정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리더십, 자기조절능력, 또래 놀이행동 간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교사용 질문지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교사의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사용 질문지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장기적인 종단연구 또는 객관적인 정보로서 부모에 의한 평가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결과가 가지는 시사점과 의의를 살펴보면, 남아와 여아의 리더십, 자기조절능력, 또래 놀이행동 간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으며, 교육과정의 목표설정 및 교육과정 속에서 유아의 성장을 고려한 교육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만5세 유아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 리더십 자기조절능력은 또래 놀이행동에서 나타나는 또래 간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유아의 또래 놀이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정과 기관에서 필요한 지원과 노력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또래 간 긍정적인 놀이를 촉진하고 또래 놀이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부모교육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강기숙(2001). 어머니의 양육행동, 유아의 인지양식 및 자기통

- 제행동발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고선희(2005). **종일제와 반일제 유아들의 문제행동 특성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숙(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상호작용 및 적용행동과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기영(2006). **또래 상호작용 속에서의 유아 리더십**. 숙명여자대학교 원격유아교육 정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남순 · 허영숙(2008). 제3장 협동게임활동이 자기조절능력과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중등교육연구**, 20, 49-67.
- 김민정(2008). **부모의 정서표현과 유아의 성별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복희(2006). **농촌지역 유아의 공동체 리더십 연구**. 건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성민(2001). **유아의 기질, 성 및 형제 유무에 따른 놀이행동 연구**.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수영(2000). 유아의 또래수용도, 놀이상호작용 및 놀이형태와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0(3), 47-66.
- 김윤희(2010). **유아의 성별과 인기도에 따른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놀이행동**.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재우 · 손경환(2009). 유아의 형제유무와 운동발달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 · 보육행정연구**, 13(1), 233-253.
- 김진영(1997). **유치원에서 또래 간 사회적 힘의 형성과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형(2002). **유아교육 기관의 운영 시간에 따른 유아들의 스트레스 및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노재은(1999). **유치원 교사의 놀이에 대한 교사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혁준(2010). **취학전 남아와 여아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기질, 또래 상호작용,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1(1), 35-46.
- 박남자 · 나은숙 · 조인숙(2008). 유아의 사회지능과 부모 배경변인과의 관계. **한국유아교육 · 보육행정학회**, 12(2), 6-21.
- 박승철(2005). **초등학교 과학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또래관계 및 자기효능감 비교**.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주희(2000).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배지희(1995). **또래관계에서 사용하는 유아의 요구전략**.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기남(2009). **유아의 리더십과 관련된 변인 연구: 유아의 개인 변인과 환경변인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안지영 · 한진원 · 김성숙 · 이은영(2007). **종일반과 반일반 유아의 대처행동 유형비교**. **한국영유아보육학**, 49, 107-128.
- 엄정애(2004). **유아의 충동성 기질 및 사회극놀이 참여도와 자기규제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5), 41-58.
- 우정순(2010). **유아의 기질과 유아 리더십 관계 연구**.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원명선(2006).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 및 어머니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위영희(2004). **유아의 정서 능력과 또래 유능성**. **교육발전학회지**, 23(1), 137-158.
- 이경남(2001). **아동의 자기통제와 관련변인 간의 인과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9(2), 97-110.
- 이경미(1992). **유아의 인기도와 조망수용능력과 관계에 대한 연구: 지각조망, 인지조망, 감정조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정(1999). **영아기 낮가림, 출생순위 및 보육기관 경험과 4세 행동억제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19, 287-307.
- 이수기(2005). **협동 미술활동이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조망 수용능력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순복(2009). **창의적 교사 역할 및 교사-유아관계가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8(2), 151-163.
- 이은진(2005). **자아성장 집단미술치료가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모-자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임순(2008). **가족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과 또래유능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란 · 양옥승(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 요인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2), 69-90.
- 이지영 · 강성숙 · 이경옥(2009). **유아의 성별, 기질, 정서지능 및 어머니의 또래 관계 관리전략과 유아의 또래유능성 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 **유아교육연구**, 29(5), 45-64.
- 이지희 · 문혁준(2008). **아동의 정서성, 정서조절 능력 및 어머니 양육행동이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4), 1-14.
- 이진화(2009). **어머니의 놀이신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와의 관계**. **한국유아교육 · 보육행정**

- 학회, 13(2), 327-344.
- 이채호 · 최인수(2008). 교사용 유아 리더십 평가척도 개발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23-37.
- 이학선(2007). 유치원 일과활동에서의 유아 자율행동 검사도구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임형희(2008). 부모의 놀이유형별 놀이참여수준과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간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영숙 · 황운세(2009). 반일제와 종일제 유아의 정서지능과 리더십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3(4), 187-205.
- 정선교(2006). 저소득층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학습행동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유진(2005). 또래관계와 어머니 및 형제와의 애정적 유대가 아동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용주(1992). 학령기 아동의 친구관계에 따른 대체지지에 관한 연구: 학교친구, 학교 외 친구, 형제관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혜영 · 신혜영(2008). 아동 또래 놀이행동 척도(PIPPS)의 국내적용을 위한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9(3), 303-318.
- 홍지영(2009). 유아의 성별에 따른 자기조절력과 또래상호작용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운세(2007). 유아의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의 인과모형 분석. *유아교육연구*, 27(1), 323-350.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1), 140-153.
- Barton. M., & Roblins, D. (2000). Regulatory disorders. In C. H. Zeanah, Jr.(Ed.), *Handbook of infant mental health*(pp. 311~325). N.Y.: Guilford Press.
- Berger, K. S., & Thompson, R. A. (1996). *The developing person through childhood*. N.Y.: Worth.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A. W. Collins(Ed.),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hip*(pp. 39~101).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ronson, M. B. (2000). *Self-regulation in early childhood: Nature and nurture*. N.Y.: The Guilford Press.
- Buhrmester, D. (1992). The development courses of sibling and peer relationship. In F. Boer, & J. Dunn(Eds.), *Children's sibling relationship: Developmental and clinical issues*(pp. 19-40).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odge, K. A. (1983). Behavioral antecedents of peer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54, 1386-1399.
- East, P. L., & Rook, K. S. (1992). Compensatory patterns of support among children' peer relationship: A test using school friends, nonschool friends, and siblings. *Developmental Psychology*, 28(1), 163-172.
- Ericker, J., & Mathur, S. (1997). What do they do all day? Comprehensive evaluation of a full-day kindergarte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4), 459-480.
- Fantuzzo, J., & Mendez. J. E. (1998). Parental assessment of peer pla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arent version of the Penn Interactive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4), 659-676.
- Felner R. D., Brand. S., DuBois. D. L., Adan. A. M., Mulhall. P. F., & Evans. E. G. (1995). Socioeconomic disadvantage, proximal environmental and academic adjustment in early adolescence: Investigation of a mediated effects model. *Child Development*, 66(3), 774-792.
- Goldsall, R. E., Jurkovic. G. J., Emshoff. J., Anderson. L., & Steanwyck. D.(2004). Why some kids do well in bad situation: Relation of parental alcohol misuse and parentification to children's self-concept. *Substance Use & Misuse*, 39(5), 789-809.
- Gottmen, J., Gonso, J., & Rasmussen, B. (1975). Social interaction, social competence, and friendship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6, 709-718.
- Harman, D. (1982). Extend-day kindergarten vs. half-day kindergarten achievement difference. Master's Thesis, Kean College of New Jersey(ERIC Document R production Service. No ED 215 784).
- Honing, A. S., & Wittmer, D. S. (1994). Encouraging positive soci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49(5), 4-12.
- Kagan, J. (1989). The concept of behavioral inhibition to the unfamiliar. In S. Reznick(Ed.), *Perspectives on behavioral inhibition*(pp. 1-24). The University of Chicago.
- Kopp, C. B. (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99-214.
- Kupersmidt, J. B., & Coie, J. D. (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 Child Development*, 61, 1350-1362.
- Masters, J. C., & Furman, W. (1981). Popularity, individual friendship selection, and specific peer interaction amo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344-350.
- Mitchell, A. (1997). *Reflection on early childhood leadership development: finding your own path in leadership in early care and education*. NAEYC, Washington, DC.
- Oliver, S., & Klugman, E. (2003). Play and learning day by day incorporating constructive play in the early childhood classroom. *Child Care Information Exchange*, 149, 62-65.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atterson, C. J., Kupersmidt, J. B., & Griesler, P. C. (1990). Children's perceptions of self and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a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 1335-1349.
- Perry, D., & Bussy, K. (1984). *Social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Piaget, J. (1965).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N.Y.: Free Press.
- Putallaz, M., & Wasserman, A. (1990). Children's entry behavior.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ubin, K. H., & Krasnor, L. (1980). Changes in the play behaviors of preschoolers: A short-term longitudinal investigation. *Canadian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 12, 278-282.
- Rubin, K. H., & Coplan, R. J. (1998). Social and non-social-play in childhood: An individual differences perspective(pp. 144-170). In O. N. Saracho, & B. Spodek(Eds.), *Multiple perspective on play in early children education*. N.Y.: State University of N.Y. Press.
- Santrock, J. W. (2003). *Children*(7th ed). N.Y.: McGraw-Hill, Inc.
- Shaffer, D. R. (2000).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4th ed.). Belmont, CA : Wadsworth/Thomson Learning.
- Snow, M. E., Jacklin, C. N., & Maccoby, E. E. (1981). Birth-order differences in peer sociability at thirty-three months. *Child Development*, 52, 589-595.
- Stewart, A. C. (1995). *탁아*. 서영숙(역). 서울: 교육과학사.
- Trawick-Smith, J. (1988). "Let's say you're the baby, ok?" Play leadership and following behavior of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July, 51-59.
- Vygotsky, L. S. (1976). Play and its role in the mental development of the child. In J. S. Bruner, A. Jolly. & K. Sylva(Eds.), *Play: Its role in development and evolution*. N.Y.: Basic Books.

접수일 : 2011년 01월 15일
 심사일 : 2011년 02월 19일
 심사완료일 : 2011년 04월 15일